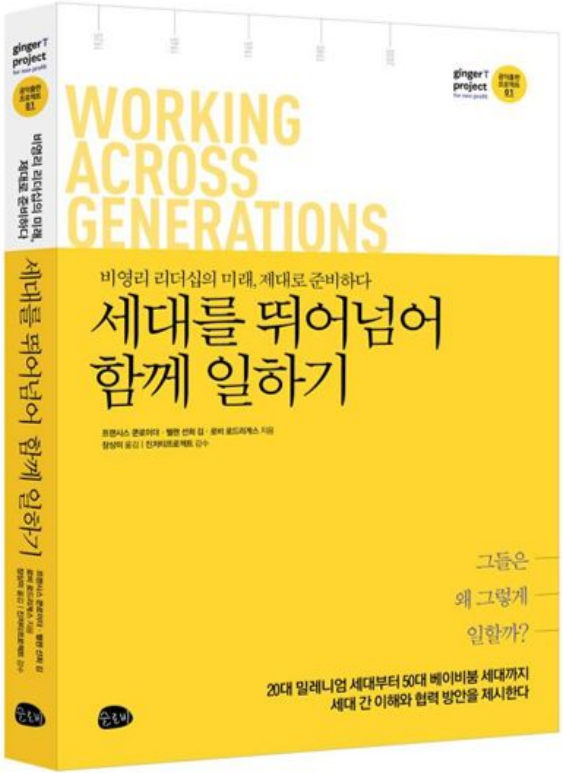
환경활동가
플랜비 워크숍

감정으로 자기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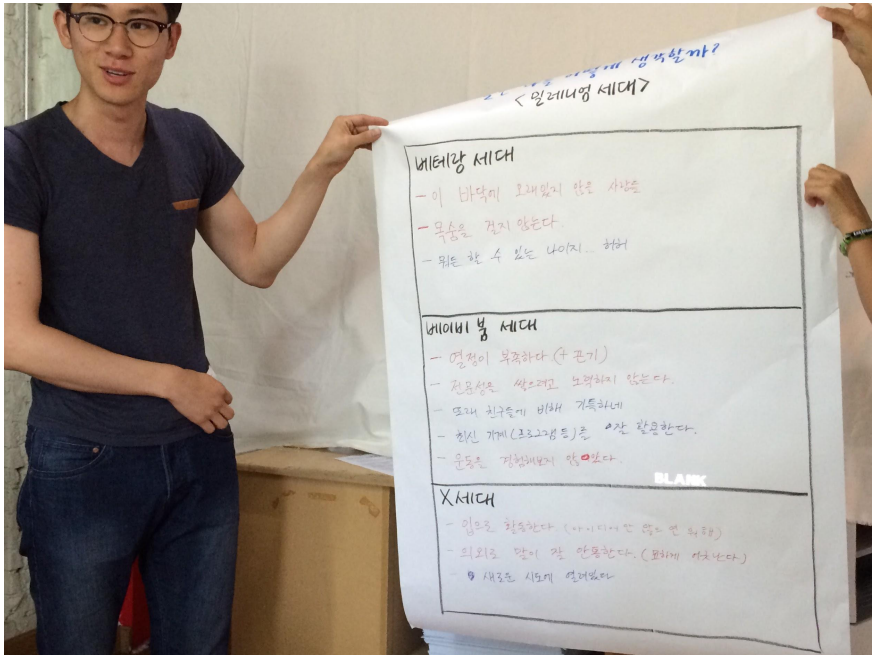
나는 지금

기쁘다 / 슬프다 / 화가난다 / 두렵다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세대 워크숍


< 밀레니엄 세대 >
베테랑 세대
베이비 붐 세대
X세대

이해하다
1. 서로를 이해하기, 인정하기, 존중하기
2. 세대간 신뢰 구축하기

세대문제일까?

더 플랜B
3월 24일 ·

"사실 양쪽의 언어를 다 알겠는데 이걸 번역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라고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잘 번역하면 잘 맞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번역이 안 되는 답답함을 계속 갖고 있어요."
http://nowplanb.kr/2279

[세대간 대나무숲] (1) 양쪽의 언어를 다 알겠는데 이걸 번역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조직에서 더 일하고 싶으니까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월요일날 당장 가서 '제가 이런 글을 읽고 왔는데요. ...

NOWPLANB.KR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Hyunkyung Jun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이 만남에서 동료들의 아쉬움을 토로한 전반부에 이어 이 분들이 정말 삶에서 혹은 일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분투하시는지를 만날 수 있다면 더더더더욱 좋은 기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3월 24일 오후 11:45

더 플랜B 녹취를 다 풀면 꽤 길텐데..시간이 걸리더라도 쭈욱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1 · 3월 25일 오전 10:47

Hyunkyung Jun 개인적으로 남탓과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않는 언어들이 반복되어 모두가 피해자인냥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작게라도 해결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겸허함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좋아요 · 답글 달기 · 3월 25일 오전 10:50

답글 달기...

세대문제일까?

2014 환경활동가 대회 “왁자지껄 고민토로 콘서트”

+ 질문내용

“차이만 확인하는 워크숍이 되지 않았으면”

시민운동 플랜B

+ 막연하게 '시민운동의 위기'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시대에 '시민운동'은 무엇이고, '누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 혹시 그동안 '시민운동'이라고 규정한 범주와 평가의 틀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색하고 진지한 평가나 위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 경험들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 이것이 <시민운동 플랜B>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이 시민운동이 처한 최악의 위기라고 한다면, 전체를 부정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서로 인식하고 길이 있다면 함께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민운동 플랜B

더 플랜B
7월 2일 ·

"야망이 큰 한 개인의 '영웅담'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를 위한 '아카이빙'이 아닌 '활동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담담히 기록하고, 각각의 활동가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배들도 일에 치여 그럴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들이 문제와 직면하며 치열하게 싸운 흔적들을 '문서가 아닌 이야기'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http://nowplanb.kr/2486

[2030활동가이야기] ③ 결국,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고도 꼬박 세 달을 더 출근 했습니다. 그만둔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까지는 열정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퇴사도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 ...
NOWPLANB.KR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회원님 외 107명 인기 댓글

공유 51회

더 플랜B
7월 21일 ·

"사명 없이 일하면 활동가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사명만 요구하면 활동가들은 더 이상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조직이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http://nowplanb.kr/2578

깊은 유감 : 난 활동가로서의 삶도 중요했지만 개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했다.
비영리활동가, 정체성에 대한 다른 시선 : 활동가는 누구인가? 를 읽고 비영리 활동을 하며 더 이상 이렇게는 안되겠다 생각한 지점이 이런 것이었다. 사회의 긍정적인...
NOWPLANB.KR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회원님 외 170명 인기 댓글

공유 99회

변화하는 활동, 변화하는 조직

오늘 일정

10시 ~ 12시 : 환경활동가 어떻게 산양?

13시 ~ 15시 : 플랜비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16시 ~ 18시 : 요즘활동 포착하기

오늘은?

저는?

일상예술창작센터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2015
여성환경연대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
가능
미디액트 보고서
이해관계자들에 보고합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지원
"내부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선뜻 실행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만들자 한데에는 '일하는 우리는 행복한가?',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을 위한 가능을 발견하는 첫 걸음은 '
우리의 활동이 행복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솔직한 공감대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얻었던 것은 '
행복하게 일하는 우리들의 철학과 태도가 사랑받는 미디액트를 만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
- 미디액트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속가능'에 대한 선언문' 중 -

저는?

31 10월

중견씨 1호로부터

"그도 부인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는데, 비록 농담이긴 했지만 서글픈 농담이었지요. 인류를 사랑하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놀라곤 한다고 말하더군요. 인류 전체를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인 사람들, 즉 사람들 개개인은 점점 덜 사랑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몽상 속에는 인류에 대한 열정적인 봉사를 생각하기에 이르고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어쩌면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행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를 하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지만, 정작 고작 이틀도 …

Tweet G+1 0

1 10월

근자씨에게 –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아니요, 아니요, 김 박사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 박사님께 있었던 일들, 김 박사님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김 박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술을 마셨는지, 혼자 담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지, 달리기를 하셨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이지 그 이야기들을 듣는다면, 그러면 좀 더 힘이 생길 거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겐 이제 김 박사님이 유일한 …

Tweet G+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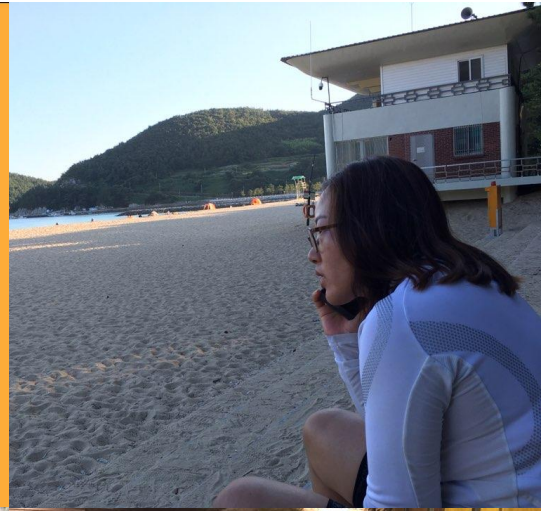
9월, 2014

4 9월

근자씨 5호로부터

그들은 배불리 먹고 고급스런 상점에 들어가네 나는 여기에 남겨져서는 운동만 열심히 해야지 (투쟁!)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이렇게 운동만 하고 건강은 자꾸 나빠지는데 먹고싶은 것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네 – 무키무키만만수 <투쟁과 다이어트> 중 피자업체 30분 배달제 폐지운동부터 약 3천명의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5억원 규모의 미지급분 주휴수당을 받아낸 쾌거를 이루어낸 곳, 어디일까요? …

기획단



1부 환경활동가 어떻게 산양?

환경활동가, 어떻게 산양?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환경활동가, 어떻게 산양?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이야기나눔

인상적이였던 부분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설문조사를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새롭게 알게된 게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된 내용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조직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점심 먹기 전에 잠깐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켰으면 하는 약속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적어 앞쪽에 붙여주세요.

각자 읽기 :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읽을거리를 읽고, 1시 30분까지 모여주세요.

읽으면서

공감가는 구절 3가지 (물결 표시)

흥미로운 구절 3가지 (그냥 밑줄)

를 찾아 밑줄 그어 주세요.

2부 환경활동가 플랜비

읽기 :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읽을거리를 읽고, 2시까지 모여주세요.

읽으면서

공감가는 구절 3가지 (물결 표시)

흥미로운 구절 3가지 (그냥 밑줄)

를 찾아 밑줄 그어 주세요.

이야기 나눔

인상깊은 구절 3가지 / 재밌는 구절 3가지 공유

토론하기 1

- 만약 한달후에 조직이 문을 닫는다면?
- 변화에 둔감한 조직
- 의사결정구조와 권한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
- 활동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제기
- 운동과 활동가의 범위를 더 확장해야
- 편중된 전문성 “활동가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 전혀 다른 네트워크 속에서 일하는 1인활동가의 조건
- 신입활동가는 신입활동가대로, 중견활동가는 중견활동가 대로
- 다른 조직문화/근무환경을 만들어가야
- 기술의 차이 = 소통의 차이 : 조직론이 있다면 온라인 조직론이 나와야

공유하기

조별로 한두명씩

토론하기 2

- 편중된 전문성 “활동가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 전혀 다른 네트워크 속에서 일하는 1인활동가의 조건
- 신입활동가는 신입활동가대로, 중견활동가는 중견활동가 대로
- 다른 조직문화/근무환경을 만들어가야
- 기술의 차이 = 소통의 차이 : 조직론이 있다면 온라인 조직론이 나와야

공유하기

조별로 한두명씩 발표

공감가는 구절 / 인상깊은 구절

옆에 붙어있는 9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을 붙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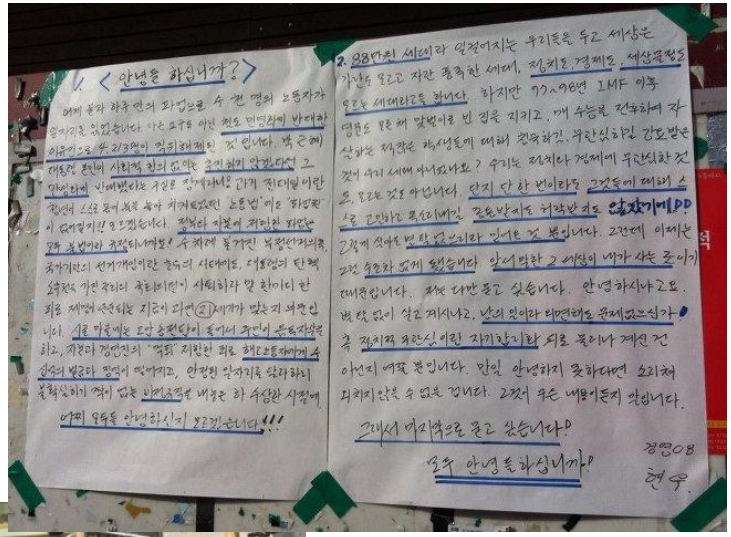
공감가는 내용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포스트잇을 덧붙여 주세요.

3부 요즘활동 포착하기

요즘 활동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요즘 활동?



특징들

비상시적 / 빠른 확산

조직이 없거나, 조직형태가 다름

온라인/오프라인 구분이 적용되지 않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20% 활동가

“일주일에 1/7을 활동가로 사는 사람들, 20~30%활동가들을 센터에 접속시킬 수 있을 때 센터의 확장성이 있다고 본다”

“20~30% 활동가들을 NPO에 끌어들이고 100%활동가들이 70~50% 활동가가 되서 다른 영역에 눈을 돌리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NPO라는 생태계를 확장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입트페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입트페의 출판 프로젝트

프로젝트 소개 | 업데이트 (17) | 댓글 (77) | 후원자 (2642)

1633
공유된 횟수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알리기

목표 2,000,000원 중 2,184% 모임

43,695,500원

남은 시간

0일

후원자

2,642명

프로젝트 밀어주기가 마감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2016년 6월 5일 - 2016년 6월 2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입트페

지역정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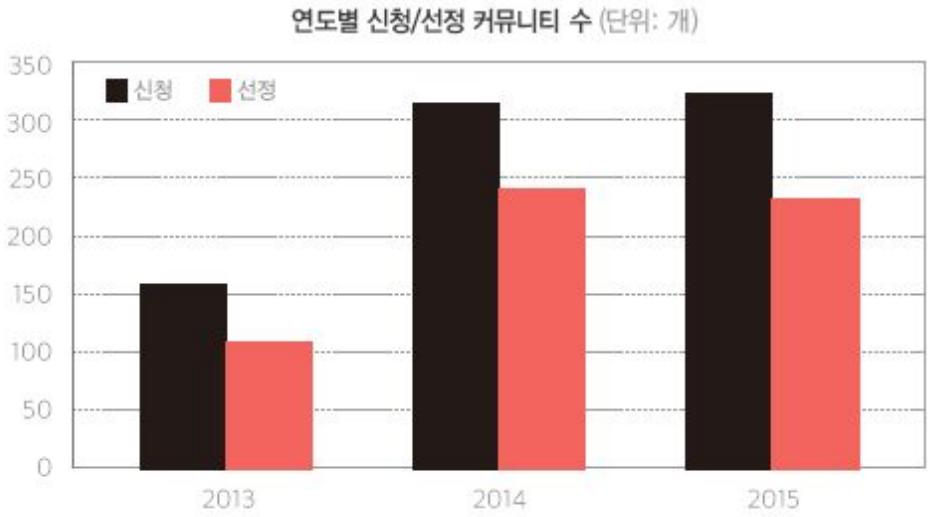
청년참

청년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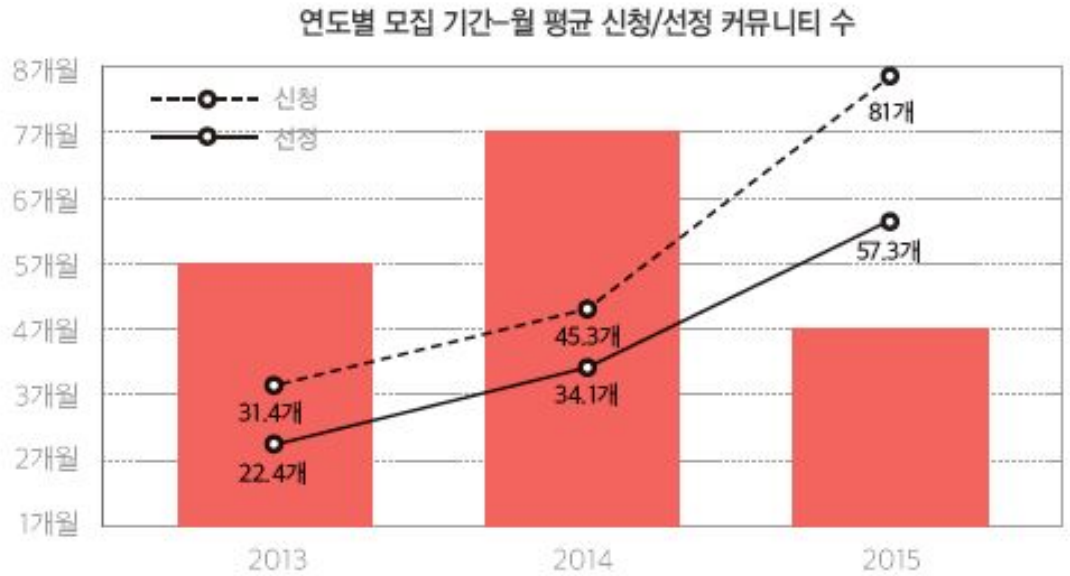
청년참

그래프로 보는 3년

신청/선정 커뮤니티 수



청년참


연도별 모집 기간-월 평균 신청/선정 커뮤니티 수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신청
선정
31.4개
22.4개
45.3개
34.1개
81개
57.3개
2013
2014
2015

청년참

커뮤니티 활동 분야

문화/예술
교육
사회 활동
공간/지역
생태/환경
기타

문화/예술
교육
사회 활동
공간/지역
생태/환경
IT
기타

문화/예술
교육
사회 활동
공간/지역
생태/환경
기타

청년활

"청년단체가
**지금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프로젝트비 최대 1,000만원 (약 15개 내외 선정예정)
지원기간	16. 4. 29(금) ~ 5. 13(금) / 정오까지 신청 (낮 12시)
참여대상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청년단체 (대표자 및 구성원 과반수 이상 만 39세 이하)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 contact@youthhub.kr
문 의	hello@youthhub.kr /070-4432-6173

청년허브

청년활

어스맨

마이리얼짐

약속의자전거

지구를위한디자인

소시민워크

에이유디_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참여활동단체_'혜욤'

CODA Korea

연번	단체명	프로젝트명
1	(주)어스맨	공정무역 재료가게
2	공영그래픽스튜디오 (구 코호스튜디오)	망원정 축제
3	굿즈	굿-즈 오픈베타
4	그린플레이그라운드(green playground)	아이엠 그린플레이그라운드
5	두보이즈	서울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두보이즈
6	마이리얼짐	바디멘토링 득근득근
7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모의국가
8	배움나눔공동체 율곡과 신사임당(율당)	율당 돗자리 프로젝트
9	비에이티(BAT)	로봇 밀링(Robotic Milling)
10	소시민워크	추억의 명화. 당신은 몇 편이나 보셨나요?
11	써클활동	precious plastic
12	약속의 자전거	자전거 리사이클링
13	어느정도의 빈틈	빈틈 있는 생활[패션편]
14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 기본권 찾기
15	오대오 (5 vs 5)	오대오 (5 vs 5)
16	우드리머	우드리머
17	지구를위한디자인	Green Design =Good Design
18	청소년참여활동단체 '혜욤'	학교밖청소년 활동의 지역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치화 조직 사업
19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동네방네 이발소
20	CODA Korea	CODAKOREA X CODAUK

주목할만한 커뮤니티

아토피스타

아토피스타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주체가 되어 시작한 팀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 ‘아토프리식당찾기 프로젝트’

순하리

비건 메뉴가 제공되는 식당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

해밭똥프로젝트

채소를 키우는 모임. 매주 일요일 노들 텃밭에서 계절에 맞는 작물을 심고 수확하여 여름엔 피클, 겨울엔 장아찌를 만들 예정

주목할만한 커뮤니티

웨이컵

깨어나는 문화예술계 신인 보물들을 인터뷰하는 인터뷰 블로그팀. 또한 성실하게 달리기를 시작한 그들을 위한 우승트로피를 의미하기도 함.

이것이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프로젝트. 숨쉴때마다 고민하던 2n살 사람 셋이 모여 단 하나의 답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함

와우산로

명성이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막 시작해서 이름을 알려가기 시작하는, 혹은 하고자 하는 일이 꾸준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젊은 청년들을 찾아 인터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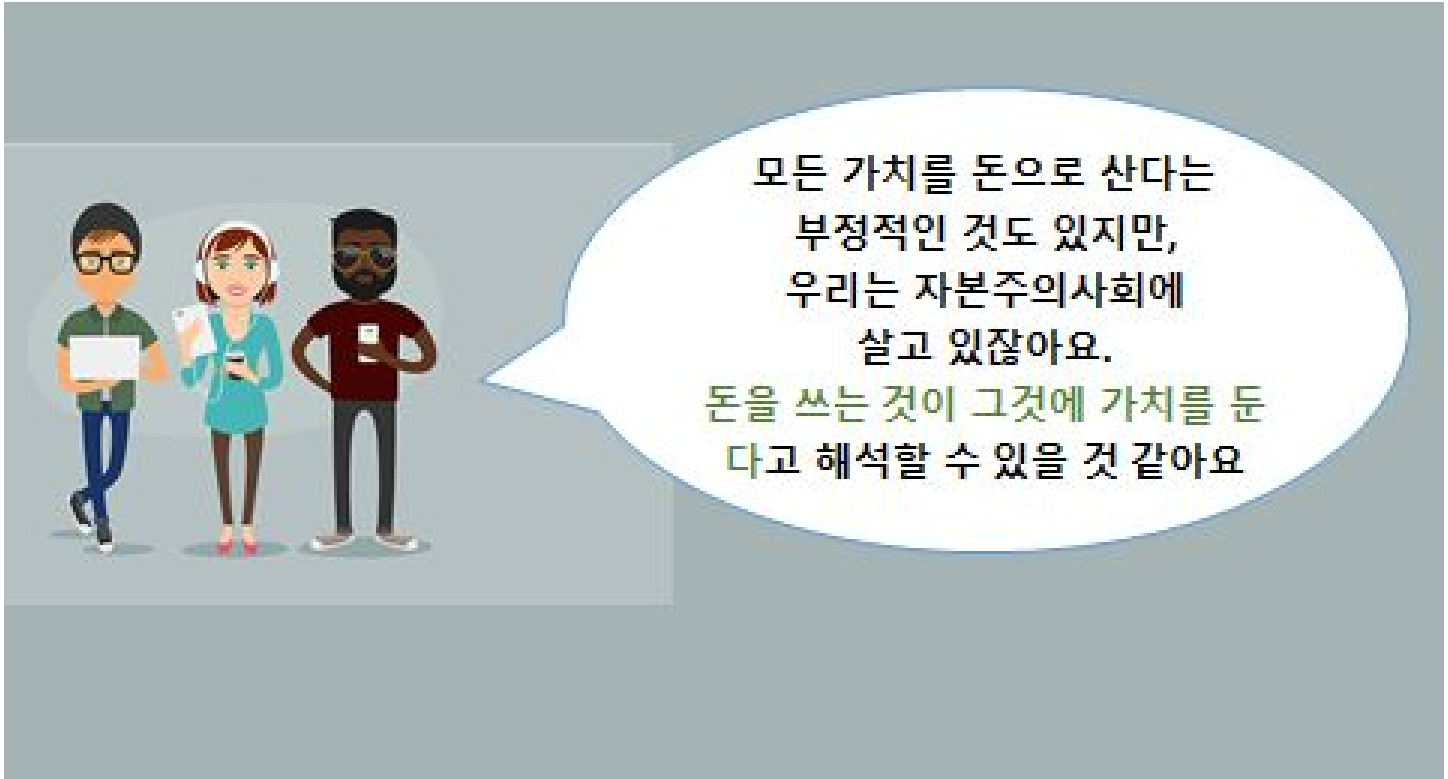
우리의 키워드

SNS,
공유
불평등
일하는
문화
굿즈
동료,
함께하는
사람들
가치
감정
신뢰
전문성
+
즐거움
80:20
재미
글쓰기
의미
생계유지
직업(수익)활동과
가치활동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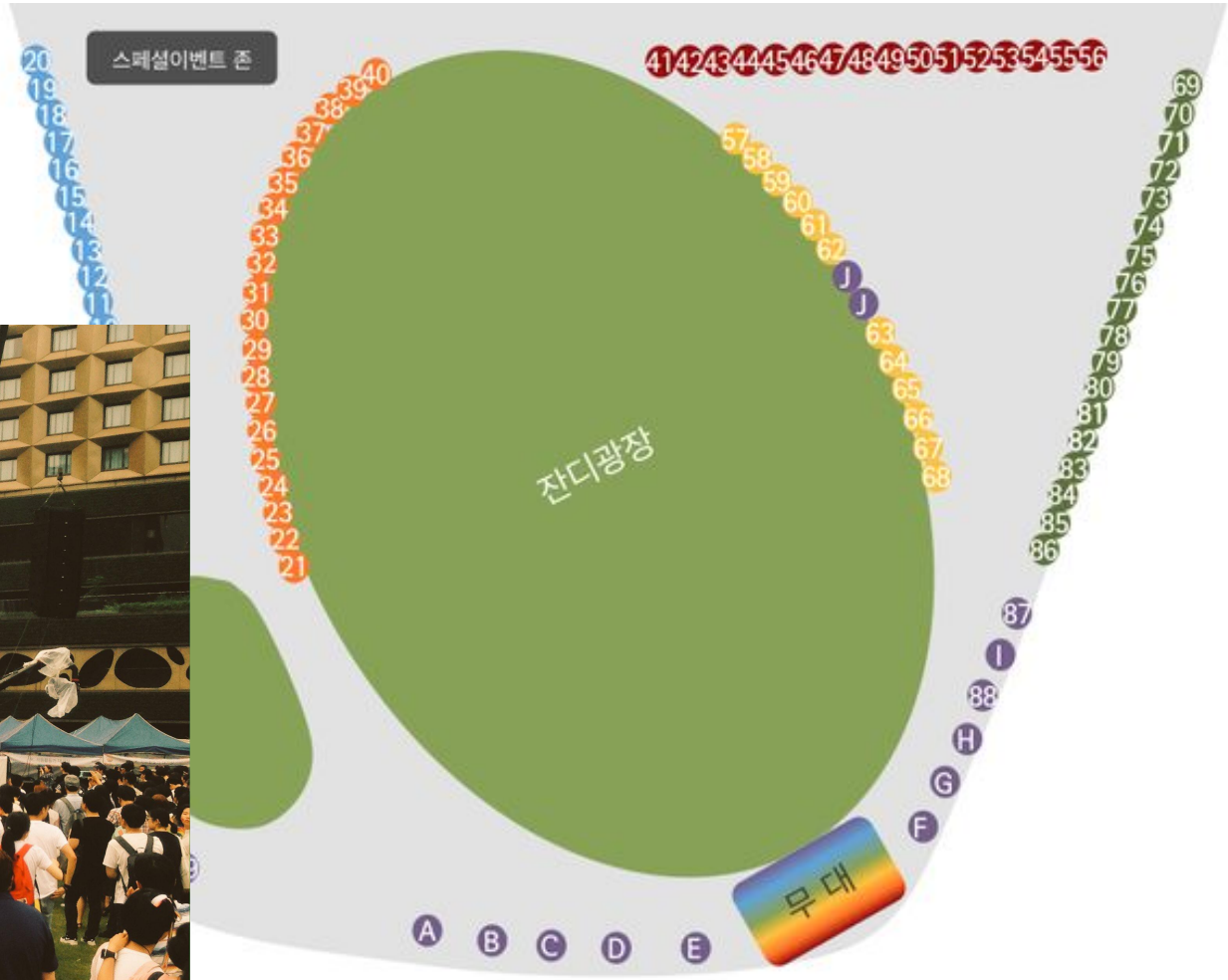
SPEAK LOUD
THINK HARD
WILD
SPEAK LOUD
THINK HARD

GIRLS
Do Not Need
A PRINCE
GIRLS
Do Not Need
A PRINCE
일상 속 페미니즘

굿즈 G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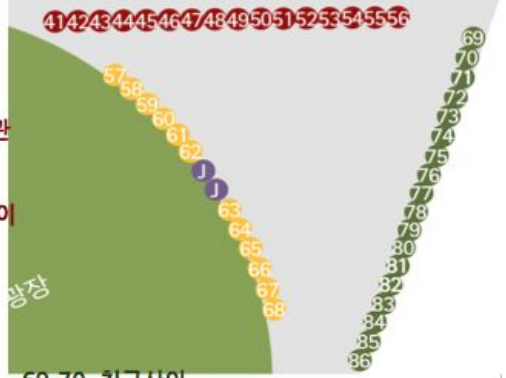

모든 가치를 돈으로 산다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을 쓰는 것이 그것에 가치를 둔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1. 차세기연
2. ODMCC
3-4. 한국레즈비언상담소
5. 사람과 사람
6. 한국고양이보호협회
7. 언니모자
8. 완전변태
9. 한국성폭력상담소
10. 이쪽사람들
11-12. 겨울선인장
13. 이화여대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14. 히끼호모리
15-16. 월드아트
17. 노동자연대
18. Letibee
19-20.『미.용.실』 미친 언니들의 용감한 실험 실, 창의적여성주의연구집단
21. 청소년성소수자 커뮤니티 "라틴"
22. 성소수자 부모모임
23-24.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 티 알 & 행성인 HIV/AIDS 팀
25-2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7. 신나는센터
28. 서울변방연극제
29. 정의당성소수자위원회
30.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31. 버밀라 마크라메 공방
32. 마법사단
33. 퀴어인문잡지 삐라
34. 동물단체 케어
35. 이화여성위원회
36. 이채
37. 녹색당
38.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 반하는 사랑' (홍반사)
39. 한국 아라미스
40. 대구퀴어문화축제
41. 아메리카어패럴
42. 러쉬코리아(Lush)
43.구글코리아
44.국네앰네스티 한국지부
45.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영국대사관, 주한독일대사관
46.주한스페인대사관, 주한벨기에대사관
47.주한유럽연합대표부, 주일슬로베니아대사관
48. 주한덴마크대사관, 주한핀란드대사관,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주한스웨덴대사관
49. 주한캐나다대사관
50. 주한미국대사관
51.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52.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53. 군인권센터
54. 서울프라이드영화제
55. 한국여성민우회
56.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 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57.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58.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59-60. 단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61. 한국여성의 전화
62. 레주파
63. 무지개책갈피
64. 이반드림
65.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66. 인권재단 사람
67. 아는언니들과같이읽는책
68. 언니네트워크



69-70. 친구사이
71-72. TOKYO NO H8 / 도쿄 노 헤이트
73.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74. 조각보-트렌스젠더 인권단체 설립준비위원회
75-76. 비온뒤무지개재단
77. 우리동물병원 생명사회적협동조합
78.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79. 폴키친
80. 랭앤벨라
81. iSHAP
82. 이반시티
83. 서강퀴어모임& 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84. 퀴어홀릭
85. 에이즈상담센터
86. 보지파티

87. 퀴어커피
88. 꿈을 만드는공장
89. 의무실
A. 공식기념품 (Official Goods)
B. 퀴어영화제(KQFF)
C. 프레스(Press)
D. 안내(Information)

E. 조직위 운영실 (Staff Only)
F. 무대운영실
G.출연팀 대기실& 분장실
H. 탈의실
I. CMS Cafeteria (쉼터)
J. 공식기념품 (Official Goods)

퀴어문화축제

19. 한국현성민우회

21. 뒤로 매거진
DUIRO

범죄가 아니라
함오를 녹이게
지구가 아니라
사랑을 뜨겁게
송전탑 아니라
공지를 세우게
녹색당
kgreens.org
녹색당

MISFITS

퀴어문화축제

백조 말고 흑조, L살롱

부스 번호: 3번

이벤트: 작년 LGBT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에서 준비한 [백조의 호수] 춤을 보고 놀라움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레즈비언 팟캐스트인 [L살롱]은 그에 대한 답가로 'ANTI LGBT COUNTER ACT 오딜 메이크업'을 준비했다. 백조가 있으면 당연히 흑조(오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리카락이나 눈썹에 흑조의 깃털을 붙여주고, 흑조 페이스 메이크업도 해준다. 천연 깃털 6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이 부담스러운 이들은 헤어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2시부터 1시간 동안 선착순 100인에게 제공된다. 퀴어문화축제 패션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벤트.

동물도 함께,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부스번호: 11번

이벤트: 사람만 더운 것이 아니다. 강한 햇살은 동물도 지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LGBT 커플들은 결혼과 입양 등이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워 축제 때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 3년째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동생은 작년에 날씨가 너무 더워 부스에 나온 동물대표 고양이 나타샤가 너무 힘들어했다고 전한다. 2년 임기의 동물대표가 올해도 부스에 참가하기 때문에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etc: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한 기본 매너를 적은 홍보책자도 배포한다.

I am the Movement

언리미티드에디션

언리미티드 에디션(UNLIMITED EDITION)은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어 온 아트북페어, 독립출판의 시장입니다.

일반적인 홍보와 거리를 두는 독립출판과 그 제작자들이 일년에 한 차례 각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책에 대해 말하고 판매하는 시간입니다.

작가/제작자와 관람자가 '직접 판매 부스'를 매개로 만나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그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언리미티드에디션

언리미티드 에디션 현장

'제 7회 언리미티드 에디션: 서울 아트북페어2015'가 지난 11월 7일과 8일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열렸다. 독립출판 서점 유어마인드가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과 프로파간다 프레스(GRAPHIC)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약 1만 3천명이 몰렸다. 2013년에 5천명, 지난해 8천명에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세다. 180여개의 독립출판사와 잡지를 발간하는 동인(同人)모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출판물을 내놓은 작가들이 직접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구매자들과 만났다. 특히 이번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현장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과 창간호, 신간 등을 선보이면서 관람객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주었다.

언리미티드에디션

신도시 님이 팔로우 중

문학과 죄송사 @moonjoi... · 2016. 8. 19.
11월 25일-27일 일민미술관에서 열리는 **언리미티드에디션**8에 참가합니다. 다다다음달에 만나요. #UE8

7 10

계간홀로~연애하지 않을 자유~ · 5일
계간홀로 7,8호는 현재 판매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소량의 재고는 11월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이벤트성으로 판매할 예정이에요. 시기를 놓치면 구할 수 없는 제철잡지 계간홀로! 따끈따끈한 9호가 나왔습니다.

4 5

66100 @im66100 · 2016. 8. 22.
[NOTICE]
66100이 **언리미티드 에디션** 8 – 서울아트북페어 2016에 연합부스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buff.ly/2boRTup pic.twitter.com/lBmYKPBlwK

3 3

SF소년단(SF少年団) · 2016. 8. 22.
SF소년단(SF少年団)이 [**언리미티드 에디션** 8 - 서울아트북페어 2016]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큰재미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UE8 #언리미티드에디션

조이여울 님이 팔로우 중

소문자에프 @small_lette... · 2016. 8. 23.
<소문자에프> 두 번째 판 펀딩이 102%를 달성하며 마감되었습니다! 323명의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또 좋은소식! 🎉🎉 <소문자에프>도 **언리미티드에디션**에 참가합니다 ✨✨✨👏👏👏

11 6

땡스북스 님이 팔로우 중

pmj5889 @pmj5889 · 2016. 8. 19.
난 오늘도 내일도 올해의 **언리미티드에디션**에 쓸 돈을 번다.

9 5

내가 팔로우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다의 작게 걷기 @2dap... · 2016. 8. 19.
언리미티드 에디션 떨어졌다 으아악 ㅜㅜㅠㅠㅠ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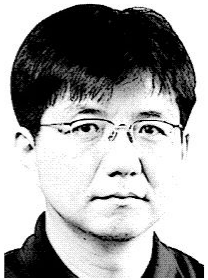
[별별시선]'언리미티드 에디션'의 성공, 왜?

박해천 | 동양대 교수·디자인 연구

219

입력 : 2015.12.06 20:43:21 | 수정 : 2015.12.06 20:59:18

지난 11월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울 일민미술관에서는 홍대 앞 독립출판물 전문 서점 '유어마인드'가 주최하는 독립출판물의 축제,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열렸다.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자신이 만든 책과 잡지, 음반과 문구류를 직접 들고 나와 판매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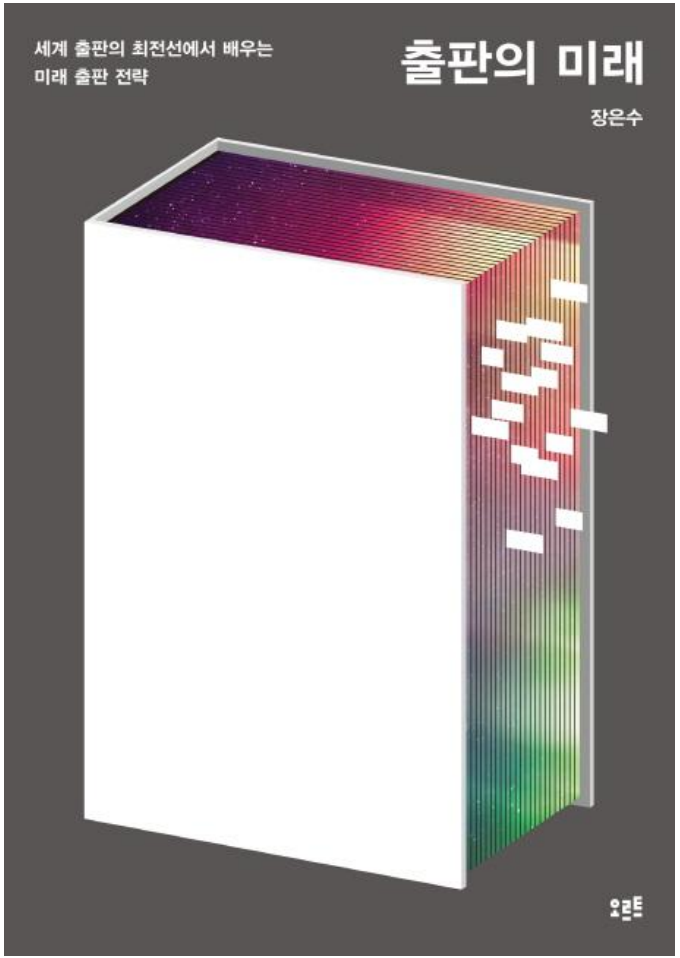
불과 2년 전만 해도 100여개였던 참가 팀은 올해 180여개로 늘었고, 5000명이었던 관람객 역시 지난해 8000명으로 늘더니 올해는 1만3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기 불황에다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출판계의 상황에 비춰보면 놀라운 성장세다. 그렇다면 '88만원 세대'의 시대에 시작한 이 행사가 '헬조선' 시대에 이르러 이례적인 성공을 거둔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손쉬운 답변은 일민미술관의 지원으로 구도심의 한복판에서 개최되어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답변은 올해의 관객 급증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이 행사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행사가 잦은 장소 이동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행사가 첫발을 내디디던 그해에 애플의 아이폰이 미국보다 2년 늦게 국내에 출시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행사의 참여자 대부분이 인터넷에 유소년기를 탕진한 첫 번째 세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실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하루에 평균 1시간 이상씩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에 몰입한 상태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했고, 버디버디와 싸이월드, 인터넷 게시판을 터전으로 삼아 현실 세계와는 다른 형태의 친밀성을 실험했던 이들, 바로 그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각자의 SNS 타임라인을 응시하면서 이 행사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빗속에 우산을 쓰고 1시간 가까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던 관람객들 중 수백 m 긴 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이가 거의 없었다. 혹시 그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이라는 또 다른 출구를 통해 이미 행사장 내부로 입장해 판매부스들을 구경하느라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지난 7년간 주최자와 참여자들이 서로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발명해낸 '언리미티드 에디션'의 플랫폼이란 특정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동기화'된 참여자 개개인의 SNS 타임라인을 타고 흘러내리는 부류의 것이라고 말이다.

출판의 미래 (활동의 미래)

1. 저자, 출판사가 되다
2. 슈퍼 자이언트의 시대
3. 독자 직접 연결 모델(D2C)
4. 기술 기업과 협업



인상적인 활동 포착하기

포착하기 최근 접했던 흥미로운 활동 사례/그룹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 활동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새롭게 알게된 게 있을까요?	

우리 단체는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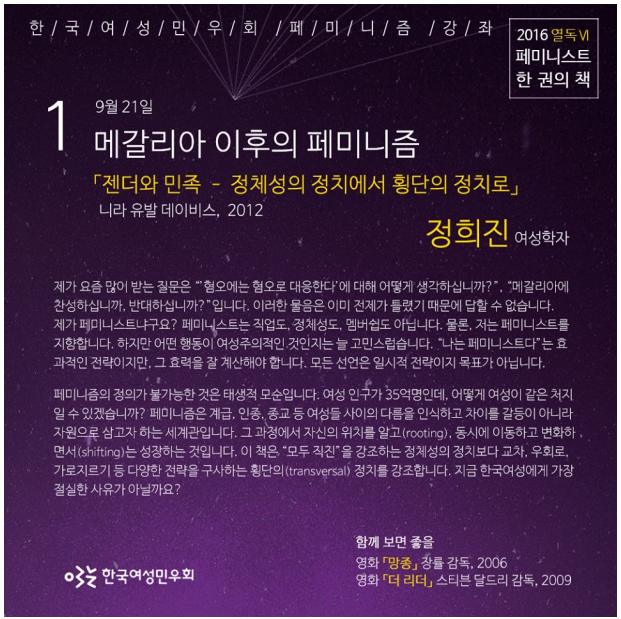
중견씨 2호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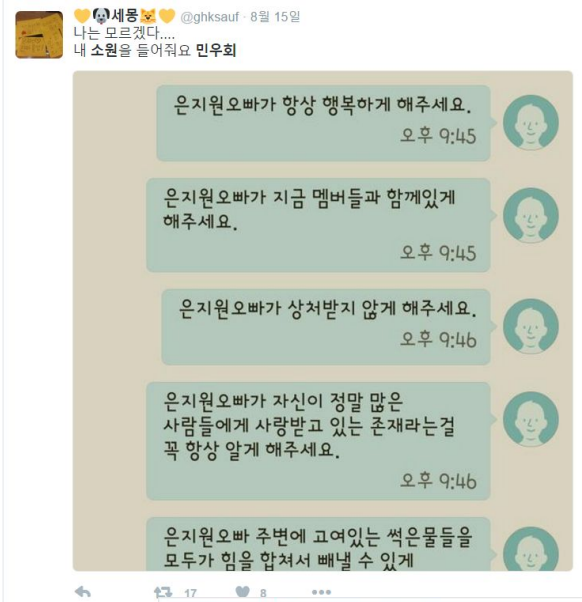
녹색연합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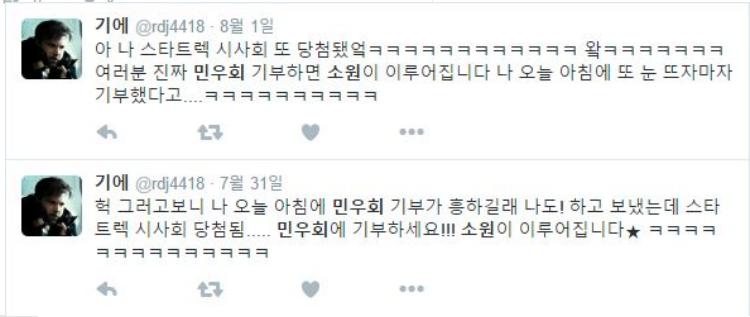
만약 중견2호가 사무처장이 된다면, 녹색연합의 무엇부터 바꾸실 겁니까.

– 만약 제가 사무처장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준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설을 한 번 써본다면. 일단은 자기 책상을 다 없앤다. 자기 자리를 없앤다. 노트북을 다 지급한다. 이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과 관성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1년 걸려요. 그런데 공간이나 하드웨어는 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결의만 하면. 돈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거지. 사무실에 오더라도, 같은 자리에 같은 부서랑 같은 사람이랑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혼자 세우지 않는다 절대. 같이 세우거나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랑 만나고. 이런 식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를 사실 해 본 적이 없을 걸요? 비영리단체들은 대부분 일단 그 사람이 좀 뛰어나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딱 사업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민우회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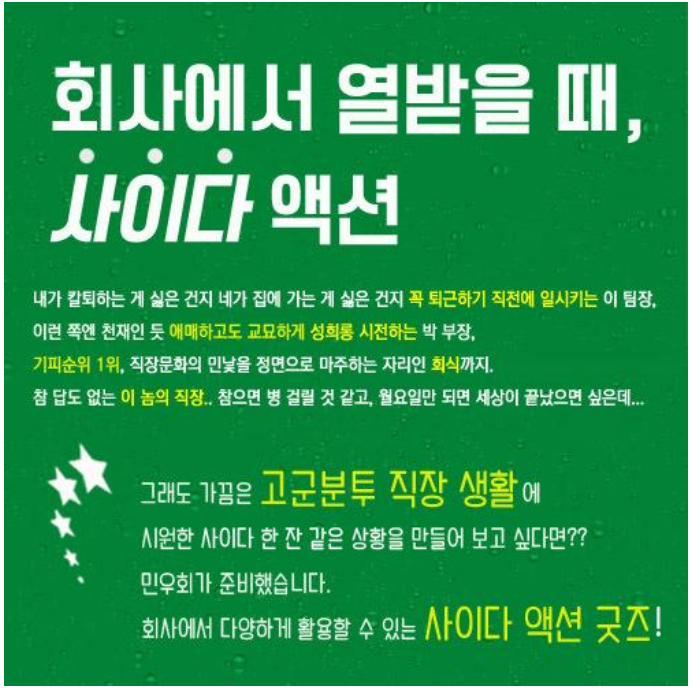
2016년 6월 현재 민우회 트위터 팔로워*수 11,688명. 최근 한달간 트윗 노출도 3,003,240. 지난 일 년간 팔로워 수는 두 배 넘게 늘었고 (2015년 5월 31일 기준 팔로워 수 5,835명) 노출도는 무려 일곱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 5월 한 달 간 노출도 423,153) 또한 팔로워수에 비해 리트윗**과 노출도가 높다는 것, 즉 열혈팬층이 많은 것도 민우회 트위터의 특징입니다.

*팔로워 : 민우회 트윗을 계속 읽는 사람 수로 '구독자'와 비슷한 뜻입니다.

**리트윗 : 다시 트윗한다는 뜻으로,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우회 인터뷰

나는 □에 있었습니다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5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5월 21일(토) 새벽 1시까지
sushiO


회사에서 열받을 때,
사이다 액션
내가 칼퇴하는 게 싫은 건지 네가 집에 가는 게 싫은 건지 꼭 퇴근하기 직전에 일시키는 이 팀장,
이런 쪽엔 천재인 듯 애매하고도 교묘하게 성희롱 시전하는 박 부장,
기피순위 1위, 직장문화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인 회식까지.
참 답도 없는 이 놈의 직장.. 참으면 병 걸릴 것 같고, 월요일만 되면 세상이 끝났으면 싶은데...
그래도 가끔은 고군분투 직장 생활에
시원한 사이다 한 잔 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민우회가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다 액션 굿즈!

강남역 사건 때 신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걸 봤는데, 당시 민우회는 어떻게 활동했는지 궁금합니다.

강남역 사건에 대해 꾼들이 들어가서 뭘 하는거냐라는 소리도 있었다. 게다가 민우회 후원하라는 포스트잇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민우회 활동가들이 붙인 게 아니었다. 포스트잇을 붙인 분이 트위터에서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또 정리가 되고.

추모가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고, 오롯이 시민들끼리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다른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신촌에서 8시간(오후 5시~새벽 1시)동안 15명 정도가 참여해서 발언했는데, 이것은 폐쇠적 공간이 아닌 자신을 밖에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 당시 발언을 미리 점검하지 않고 나간 것이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민우회에 대해 신뢰가 생겼다. 여성폭력 중단을 위해 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강남역 사건 이후에는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이 당시에 활동했던 여성들의 사진이 온/오프라인으로 유출되어 피해받는 사례들이 생겨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소식지를 보니 트위터 팔로워 수가 늘었다고 하시던데, 회원이나 모금도 늘었나요?

작년 초 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IS보다 페미니스트가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김태훈씨가 했고, 그를 계기고 #나는페미니스트다 운동이 온라인상에서 퍼졌다. 민우회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그 한달동안 100명이 넘는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셨다. 민우회 활동 13년 만에 처음보는 현상이었다.

그 이후에 장동민 사건이 있을 때도 회원들이 늘었는데, 우리는 이런 분들을 페미요정이라고 부른다. 페미요정들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회원가입하는 분들이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에 300명 정도 회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일시후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후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입금’을 하는 거다라며 후원을 한다. 최근에 입금을 하면서 문자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 문자에 소원 뿐만 아니라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주고, 그걸 우리는 트위터에 올리고 하니 그 감동이 많이 퍼지는 것 같다.

입트페/메갈티셔츠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기쁘다.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 활동에 후원하는 것도 좋고,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더욱 기쁘다.

민우회도 2010년부터 온라인 모금을 해 왔는데, 여러 통로가 있고,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다. 홍보 관련돼서는 홍보 담당자가 따로 있지만 모든 활동가가 자신의 운동을 알리고 소통하는데 신경쓰는 분위기가 있다.

요즘에는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구도 많아져서, 사소한 하나라도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한다. 예를 들면 홍보담당자가 저녁에 게시물을 올리면, 온라인 상에서 민우회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시물이 달리는 식이다.

여성주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데, 홍보/디지털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것 처럼 내부적으로 조직 외부의 여성주의 활동가 연대하는 부분을 따로 집중을 한다던지 하는 게 있으실까요?

민우회에서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각자가 맡은 실무영역이 있지만 모든 활동가가 회원,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함께할지 각자 맡은 영역에서 고민하자는 게 있다. 별도로 담당을 두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연결지점을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의 세대 구성은 어떤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젊은 층이 많긴한데, 단체와 아주 가까운 활동회원들은 100명 정도 되는데, 단체 초창기부터 같이해오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최근에는 신입회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소모임도 활성화 되면서, 활동회원 그룹에서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생겼다.

민우회에서는 2009년부터 '물길'이라는 사업을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을 모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회원과 상관없이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재생산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우리 회원 만들기가 아닌 사회적으로 여성주의 재생산을 위해 긴 호흡으로 가는 것으로 상정했다.

몇년전에 우리 단체 이름이 너무 올드하고 부인회 같은 느낌있다는 얘기를 들어 별칭을 지었다. 여는민우회라고. 많은 사람들이별칭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열심히 쓰고 있는데. 물길에 참여한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민우회에 대한 인상을 물었을 때, 민우회가 친근한 큰언니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인회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웃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였고, 이름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활동가들도 20-30대가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층이 꾸준히 들어오긴하는데, 근속년수가 높은 활동가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연차가 있다. 처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선임활동가가 있고, 신입활동가가 있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우회도 신입활동가들이 좀 빨리 나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신입활동가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민우회/여성주의 활동에 대한 긍지? 같은 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퀴어문화축제, 언리미티드에디션 같은 활동을 보면서, 민우회 내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다른 건 안부러운데, 그런 재밌는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다. 너무 재밌다.

3월에 여성대회를 하는데,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퀴어문화축제만큼 재미도 없고, 그런 분위기가 안나온다. 아무래도 여연이나 단체들이 중심이 되서 하다보니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다.

독립출판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민우회에서는 활동내용을 책으로 낸 것도 많이 있고, 반응도 좋은 편이다. 사업내용들도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출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다른 여성주의 그룹들과 함께 기획 중인 것이 있는가?

확실히 그런 요청들이 많이 생기긴 했다. 최근에 메갈티셔츠 사건 이후 홍대에서 집회를 할 때, 요청이 들어와 함께 기획하기도 했고. 행사가 있을 때 부스로 참여하기도 했다.

9월에 여성회의가 있어서, 최근에 여성주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단체와 단체가 만나 하나의 단체로 보이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연대가 가지는 의미가 물론 있지만,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활동 그룹이 많이 보이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

자랑할만한 조직 문화가 있을까요?

중간리더십이 꽤 있고, 팀 별로 활동하다 보니 조직 운영이 잘 운영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회원 만남의 날을 하고 있고 이걸 해야 소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활동가 1명당 거의 1개 소모임씩을 담당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서, 너무 늘어나지 않게 조정은 하고 있다.

소모임으로 들어갈 때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나이, 결혼 여부, 성정체성 등),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별칭을 사용하는데, 별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통을 막을 수 있는 한계들을 넘고 싶었다.
평등한 의사소통(조직문화)을 중요시 하는 편이다.

단체에 사람이 들어가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는데, 민우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하여 노력하는 것이 있는가?

서로의 성장을 목격해서 너무 기쁘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강남역 사건에 대해 긴급하게 기획하는 회의가 있었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됐는데. 거리에서 해야 할 역할분담도 진행하면서 생겨나는 상황이었다.

쉽지 않았음에도 모든 활동가들의 눈빛과 각자가 알아서 각자의 역할을 해 내는 걸 보니 감동적이었다. 페이스북 생중계가 처음이었고, 엠프가 여러 대 필요했는데 각자 알아서 해결해 오고 모두 끝나고 서로 수고한 활동가에게 박수를 보내는 상황이 되니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총회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있다 보니,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고받고 있다.

추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여성주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나온게 불과 몇년 전이다. 그 동안에 꾸준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온 활동가들이 있어와서, 최근 이슈가 되니까 참고하고, 출처가 되는 경우도 자주 본다”

“단체들이 중간항이 돼서, 언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새롭게 여성주의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언어가 이상하게 소비되는 경우를 보는데, 이를 언어화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지금은 그 공간을 열어가는 게 페이스북”

추가로

“처음인 것처럼 여성주의를 하는 친구들에게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여성주의를 처음 접할 때 드는 감정은, 단절이고 분노이다. 활동의 이야기를 잘 쌓아서 나 말고도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는 걸 잘 연결해주면 좋겠다”

“단체들이 잘하고 있는게, 외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다. 서로서로 도우면서, 연대감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연습장 역할을 하고있다”

우리 조직 돌아보기

인상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어떤 감정**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발견 발표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된 내용이 있을까요?	**실험/시도** 조직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요?

거의 끝났어요

기록으로 남기기

단체 워크숍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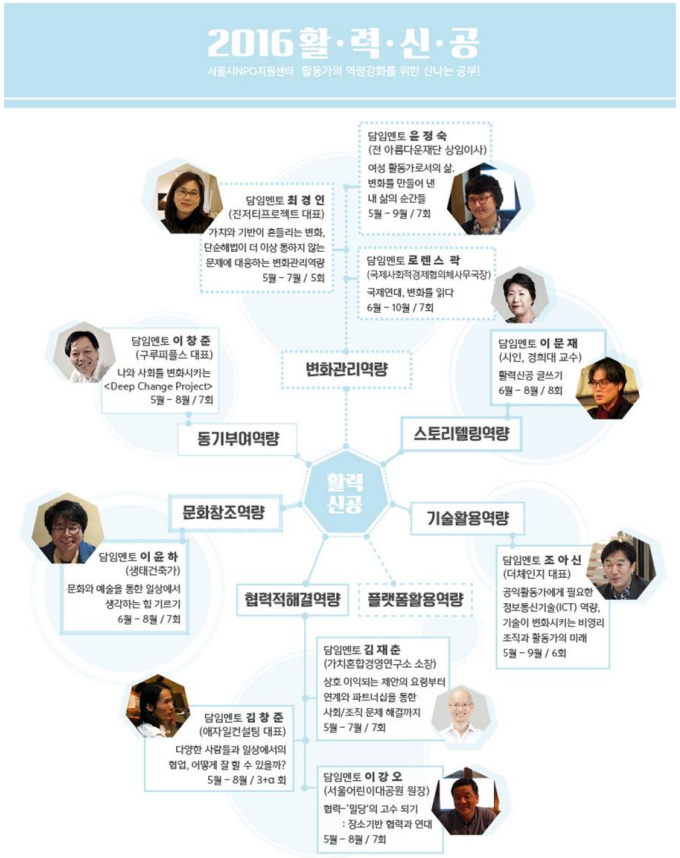
센터 블로그

동료들과/전문가와 이야기나눠 보고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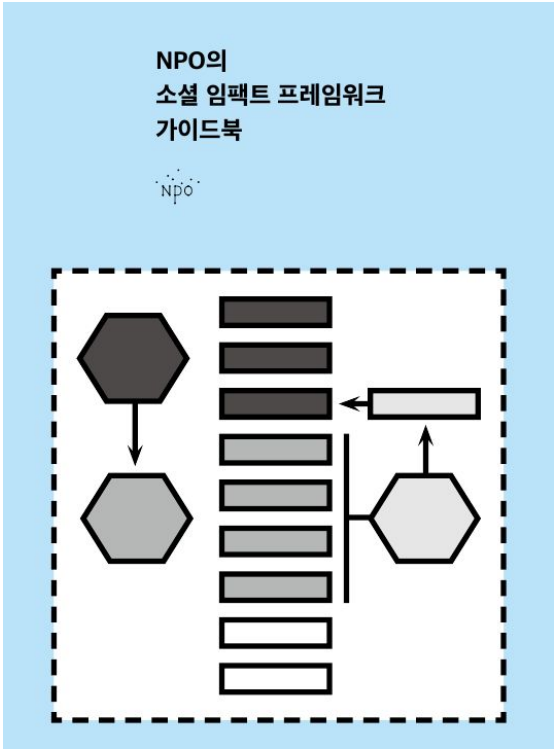
UFO FACTORY

N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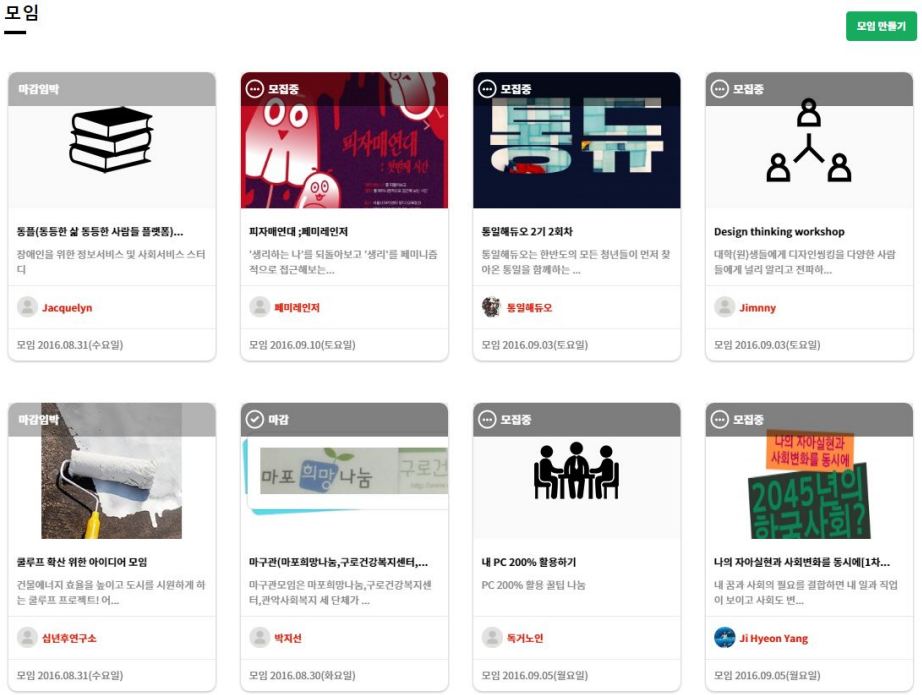
이런 주제로 교육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고할만한 연구/메뉴얼은 없을까?



관심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고싶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